

취업준비생 토픽 분석을 통한 취업난 원인의 재탐색[†]

김정수* · 이석준**

<요 약>

본 연구는 개인-환경 부합 관점에서 취업시장변화에 따른 취업준비생의 관심사를 토대로 의사결정과정
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난의 원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3개년(2013~2015) 간 취업 관
련 커뮤니티 내 이용자 게시글(소셜미디어)을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토픽 분
석을 통해 취업준비생의 주요 관심사 유형 및 심리적 반응·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취업준비생의 주요 관심사가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취업사전준비활동,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취업 스트레스'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직업가치나 미래
진로에 대한 탐색보다 희망직업과 관련하여 금전적 보상이나 직장근무형태(근무 및 생활환경)에 관해 관심
을 두고 있어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하면서 특정 언어적 사용(예: 비속어, 은어)을 토대로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성공을 위한 전략적 선택차원에서 주로
스펙준비에 치중하고 있어 취업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취업난은 총체적으로 개인과 사회·조직의 가치추구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개인은 자신의
직업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며, 사회적
으로는 직업위세란 장애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난이란 특정
상황과 현상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다수의 취업준비생 관심사를 도출하기 위한 토픽분석과 이들의
다양한 반응의 의미를 언어·심리적 이론을 토대로 해석하는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핵심주제어: 취업준비생, 관심사, 소셜미디어, 텍스트 마이닝, 토픽 분석

논문접수일: 2016년 02월 04일 수정일: 2016년 02월 29일 게재확정일: 2016년 02월 29일

† 이 논문은 2014년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박사(제 1저자), aron78@kw.ac.kr

**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교신저자), sjlee@kw.ac.kr

I.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노동시장은 수요-공급 간 일자리 매칭 효율성의 차이로 인해 구직자의 취업 탐색기간이 장기화되고 유휴 노동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경제상황의 악재,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공급측면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력직과 비정규직 위주의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선문대학교, 2008). 반면 수요측면에서 구직자의 대기업 선호 경향과 고학력자 증가로 인해 인적자원의 공급과 수요 간의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즉,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적합한 직업과 인력을 찾는 과정에서 직업 관련 정보(예: 구직자의 직업에 대한 인식, 관심사, 필요 역량 등)의 불균형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은 객관적인 직업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취업준비가 필요한지 판단하는데 제한이 있어 특정 준비활동에 치중하면서 노동시장의 인력요구 변화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고(조영하 외, 2008; 채창균과 김태기, 2009) 직업에 대한 불만이나 불안정성을 토로하거나 절망감에 빠져 상당기간 구직을 포기하고 있다. 게다가 안정성이 보장되는 평생 직업분야(예: 공무원, 전문직 등)나 취업가능성이 높은 이공계열 전공에 대한 인력 쏠림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런 사회문제를 P(person)-E(environment) fit(개인-환경 부합) 관점(Ostroff and Schulte, 2007)에서 살펴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특성과 직업환경이 유사하거나 부합할 때 긍정적인 결과(예: 만족, 몰입, 스트레스나 이직의도 감소)가 나타난다. 하지만, 최근 노동시장의 악재(경제위기, 소비침체 등)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에 대한 위협을 회피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고 지각하여 직면한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

(Lazarus and Folkman, 1984)하게 된다. 즉,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지속적으로 찾지 못하는 취업준비생들은 상황을 피하고자 부정적인 사회적 단서(social cue)에 국한된 제한된 사고(thought)-행동(action) 목록에 의해 정보를 축소하여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결정(Fredrickson, 2001)을 선택하여 더욱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불확실한 노동시장 환경 하에서 취업준비생들은 자신의 적성·역량탐색을 통한 직업비전이나 경력개발보다 개인적인 긴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로 단편적인 정보해석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직 후에도 신입사원의 40.5%가 ‘자신의 직무와 적성이 맞지 않다.’(한국고용정보원, 2014)는 이유로 퇴사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희망자들의 직업과 환경에 대한 선택적 지각에 따른 주요 관심사를 통해 현 노동시장에 대한 구직자의 반응 및 취업준비 형태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간 국내 선행연구들은 취업난과 일자리 부족의 원인을 구직자의 고학력화에 따른 청년층의 인식, 노동시장의 요구변화에 맞는 적합한 취업준비의 부재 또는 경기침체로 인한 적절한 일자리 공급 부족 등의 요인을 통해 탐색하였다(오호영과 송창용, 2010; 정영근 외, 2011). 그리고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취업 준비생(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개인 학교생활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취업 준비생의 특정 준비활동(예: 학과공부, 복수전공 여부, 해외어학연수, 인턴 경험, 자격증 취득, 사교육 참여, 휴학 등)(조영하 외, 2008; 채창균과 김태기, 2009) 정도에 따른 취업 성공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개인들은 소위 스펙이라는 특정한 구직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미

래 진로의 불안감에 구직단념 행동까지 취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사람들이 실제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보다 심리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자신들의 주관적 지각을 통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Kim, 2008).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 실태의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취업시장이라는 환경의 영향에 따른 취업준비생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반응의 의미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모여 상호작용하고 상호의존하는 두 명 이상의 개인이 모인 집단형태(Robbins *et al.*, 2011)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들은 새로운 문화적, 심리적 및 잠재적 문제요소(예: 이태백, 삼포세대 등)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들은 특정 시점에서 취업준비생의 심리상태나 구직 관련 활동에 국한되어 있어 이들의 행동패턴이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취업준비생들의 직접적인 감정이 내포되어 작성된 메시지로부터 그들의 특징(예: 욕구, 가치, 태도)을 탐색하는 연구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리고 최근 예비 취업자들은 구두로 하는 의사소통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텍스트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면서 취업정보나 관심사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취업 관련 주제 게시판 내 텍스트를 활용하여 실제 구직자들의 주요 관심사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토픽 분석(topic analysis)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사용자들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와 서비스의 특성이 변화하고 폭증하고 있어 실제 활용 가능한 90% 이상의 정보는 비구조화된 형태(unstructured format)를 띠고 있어 실제 정보를 저장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텍스트를 활용한 분석(Verma *et al.*, 2015)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환경변화를 겪고 있는 이용자(취업준비생)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취업관련 연구

최근 청년실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청년층 실업대책이 시행되고 취업준비생 역시 일자리를 찾자 다양한 취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박성재와 반정호, 2006; 이영민 외, 2014; 이제경과 김동일, 2004). 특히 청년층은 성인에 비해 심리적 안정·경제적 자립측면이 취약하여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계층으로 이들의 미취업 문제는 진로 및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사회적 갈등이나 일탈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신규 인력인 청년의 노동력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해 손실이 초래될 수 있어 국가적·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 및 진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강순희와 안준기, 2010; 장재윤 외, 2006).

이에 선행 연구들은 취업 가능성 차원에서 미취업의 원인을 내·외부 요인으로 구분하여 탐색하였다(이아라 외, 2013). 국내 청년 실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외부적 환경요인으로 물리적 환경(산업구조변화, 수요-공급 불일치 등)과 사회적 환경(국가·기업정책, 경제적·가정적 환경 등)에 따른 실업의 원인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예를 들어, 최근 취업난과 일자리 부족을 구직자의 고학력화에 따른 청년층의 인식, 노동시장의 요구변화에 맞는 적합한 취업준비의 부족 또는 경기침체로 인한 적절한 일자리 공급

부족에 기인한다고 제시하고 있다(오호영과 송창용, 2011; 정영근 외, 2011). 한편 연령, 성별 및 직업관련 요인(전공, 성적, 만족도 등), 심리적 요인(구직스트레스, 구직효능감 등)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한 개인·내적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개인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취업 준비생의 특정 준비활동(예: 학과공부, 복수전공 여부, 해외 어학연수, 인턴 경험, 자격증 취득, 사교육 참여, 휴학 등)(조영하 외, 2008; 채창균과 김태기, 2009) 정도에 따라 취업 성공 가능성이 좌우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청년실업 문제를 외부 환경과 개인특성을 반영하여 탐색하였지만, 실제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층의 개인특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구(예: 고경필과 심미영, 2015)가 부족하여 이들의 태도나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취업 준비생은 개인의 욕구인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동기요인을 지니고 있어 노동시장이란 환경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전공에 적합한 일자리, 금전적 혜택 등)이 제공될 때 개인-환경부합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환경요인은 상황적 맥락의 특정한 특성에 대한 평가로 집단(조직, 부서), 특정 직업 종사자들 간에 형성된 전반적이고 통합된 평가를 토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Hogan and Roberts, 2000; Schneider, 1987). 특히, 실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심리적인 장(field)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에만 주관적으로 반응하여 심리적·신체적 영향(Lewin, 1939; 김정식과 김원석, 2008)을 받기 때문에 변화하는 취업환경(자극, stimulus) 속에서 취업준비생의 행동이나 태도는 환경에 대한 지각(perception)이나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준비생들은 불안한 취업시장 상황을 위협한 요인으로 지각하면서 자신들

이 선택하는 대안(취업 성공 결정요인)이 원치 않거나 실망스러운 결과나 불확실성이 내포된 위협에 따라 의사결정(Sitkin and Weingart, 1995)을 하게 되므로 특정 자격이나 점수 취득과 같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구인자인 채용 기업이나 정부기관에 증명할 수 있는 취업활동에 더욱 열중하게 된다. 더구나 이들은 현재 상황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위험탐색(Kahneman and Tversky, 1979)을 위해 온라인 상 커뮤니티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의 취업과 관련된 의견이나 조언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증권 게시판(종목 토론실)에 메시지(게시물)를 입력하거나 읽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행위(Antweiler and Frank, 2004)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 일정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문항이나 주관식 기술문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정보를 취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특정 기간 동안 취업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내 게재된 이용자들의 게시글을 수집하여 이들의 관심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2. 텍스트 마이닝 및 토픽 분석

최근 새로운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 문화의 확산에 따라, 웹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가 생산 및 유통되고 있다. 이런 텍스트는 사용자가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 정보를 교환, 표현, 획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Witten, 2004)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다량의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전에는 찾을 수 없었던 새롭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다(Hearst, 1999; Sebastiani, 2002). 특히,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에서 확장된 형태의 텍스트 마이닝은 전통적인 데이터 마이닝에서 사용되는 연관관계 분석(association analysis), 분류(classification), 군집화(clustering) 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 정보 검색, 전산 언어학, 토픽 분석, 텍스트 범주화(text categorization) 등의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Mooney and Bunescu, 2006; Stanvrianou *et al.*, 2007). 이런 의미에서 국내 연구도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철우와 김재준(2012)은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의 중요빈도, 시간과 공간의 정보를 트렌드 분석을 포함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 의해 중요한 키워드를 도출하여 건설분야 미래 기술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임시영 외(2014)는 국내외 U-City와 Smart City에 관한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두 개념이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또는 그간의 U-City 연구 결과를 확대하여 세계적 추세인 Smart City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채민성 외(2012)는 개개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등록된 SNS 친구에 대한 친밀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송혜지 외(2013)는 외국 학술지에 나타난 한국의 경제 분야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로 Web of Knowledge의 연구논문을 활용하였으며, 키워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해 연구 동향 및 지적구조를 파악하였다. 그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감미아와 송민, 2012; 문주영, 2009; 민기영 외, 2014; 배정환 외, 2013; 이재운 외, 2007; 이혜영과 곽승진, 2011; 홍진성 외, 2014).

특히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에서도 다수의 문서로부터 여러 토픽을 추출하고 어떤 문서가 어

떤 토픽에 해당되는지 식별하는 기법인 토픽 분석이 주목 받으면서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평 분석(Liu, 2012; Myung *et al.*, 2008), 범죄 예측(Fan *et al.*, 2006),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박자현과 송민, 2013), 병사 사고예측 모델 개발(윤승진 외, 2015), 고객 세분화 방법론 개발(현윤진 외, 2015)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일반 사용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각자의 성향을 텍스트 형태로 표현하고 이를 공유함에 따라,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사용자들의 토픽을 분석하여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Choi, 2012; Kim, 2012)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취업정보, 구인자 및 구직자들의 관계를 텍스트 마이닝 또는 토픽 분석을 통해 접근한 연구는 특정 지역의 기업정보와 구직자 간의 구인 조건에 대한 연관관계를 설문조사와 의사결정트리 등을 통해 분석한 김진성(2012) 외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최근 취업난의 원인과 이로 인한 취업준비생의 반응과 관심사 변화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및 분석기간 정의

본 연구는 최근 취업준비생의 주요 관심사 변화분석을 위해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포털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공통된 성향이 있는 이용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관계를 유지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논리적 목적

지향형 유형(김현과 백미정, 2010) 중, 다양한 주제에 대해 사용자들이 익명성을 통해 글을 게재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용자가 규모가 큰 커뮤니티 공간인 디시인사이드(www.dcsinside.com) 내 “취업 갤러리” 게시판에 사용자들이 남긴 텍스트를 취합하였다. 그 외에 취업준비생이 활용하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종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해당 인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취업 관련 카페(취업뽀개기, 독취사 등)는 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채용 프로세스(인적성 검사, 면접)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접근 승인등급 이외의 인원이 게시된 글을 열람하거나 게재할 수 없는 폐쇄성을 지니고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네이트 판의 특특 내 ‘취업과 면접(<http://pam.nate.com/talk/c20054>)’ 게시판은 과거 게시글이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보다 다양한 이용자 글을 분석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1999년 청년실업률(12~29세 연령층의 실업률)을 기준으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최근 3개년(2013~2015년)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은 해당 기간 동안 다양한 정부정책(예: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취업 성공패키지, 해외취업 촉진대책 등)시행, 기업변동(예: 파산신청, 인력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제 시행 등), 고학력 인력 증가,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여 예비 취업 희망인원의 반응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2. 취업준비생 토픽 분석

토픽 분석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작성한 글(텍스트)을 통해 어떤 현상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사회 과학

자, 비즈니스 분석가 등)에게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Ramage *et al.*, 2010). 이런 토픽 분석은 문서 집합 내에서 동시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기준으로 유사한 주제에 따라 문서들을 그룹화 한다. 특히, 개별 문서와 주제는 일대일 매칭의 개념이 아닌 여러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가정 할 때, 소셜 미디어(취업 갤러리) 내 단어들의 집합을 토대로 토픽을 추출할 수 있으며, 문서 집합 내에서 해당 토픽의 출현 빈도는 그것에 대한 관심 정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심도를 산출함으로써 사용자들의 관심분야 도출 및 개개인의 토픽에 대한 관심도를 도출할 수 있다. 분석의 최소 단위는 각 문서가 벡터공간모델(Vector Space Model)(Albright, 2004)을 이용하여 표현되며, 각 문서에 사용된 용어의 빈도에 따라 해당 문서의 주제 및 특성이 요약된다. 대부분의 경우, 용어의 빈도수 보다는 TF-IDF(단어 빈도-역문서 빈도,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값을 많이 활용한다(Salton *et al.*, 1983). 이것은 여러 문서 집합으로부터 특정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값이다. IDF는 단어 빈도뿐만 아니라 DF(문서빈도, Document Frequency)의 역수를 취한 IDF를 고려한다. IDF는 특정 단어가 문서 집합 내에서 얼마나 공통적으로 출현하는지를 나타낸 값이다. TF-IDF에 기반한 분석에서 각 문서는 용어 개수만큼의 차원을 갖게 되며, 이는 (문서)×(용어) 형태의 행렬로 표현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렬은 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서 간 유사성 측정을 위해 각 문서는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등의 차원축소기법을 통해 저장된다(Albright, 2004). 이러한 비정형 텍스트 문서가 정형화 되면 텍스트 토픽 분석을 통해 문서들을 군집화 한다. 토픽 분석은 기존의 군집분석 등의 유사문서 그룹화 기법과는 다르게 앞에

서 다대다 대응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문서에 꼭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여러 주제를 포함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 현실을 잘 반영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IV. 실증분석

1.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본 연구에서 사용될 데이터는 ‘디시인사이드’ 취업 갤러리(일명 취깁)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게재한 글을 JAVA Programming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 데이터셋은 날짜, 시간, 사용자 ID, 제목, 내용, 댓글 등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분석 전에 불필요한 데이터 삭제 및 데이터 형식의 표준화를 위해 전처리(preprocessing) 과정을 진행하였다. 특히, 텍스트는 단어(words), 특수문자(special characters), 구조적 정보(structural information, 예: SGML Tags)로 구성(Ahonen, *et al.*, 1997)되어 있어 원본 데이터(raw data)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단계(He, 2013)는 다른 도메인 영역이나 결과에 따라 전체 노력의 80% 만큼이 소요될 수 있어 프로세스의 효율 측면에서 중요하다(Ahonen, *et al.*, 1997).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과 관련된 사용자 글과 내용상 무관(예: 광고성 글, 특정 글자만 반복 제시)하거나 불필요한 특수문자 등을 제거하였다. 구체적으로 HTML 코드, 스크립트 언어, 특수기호(□, ▲, ○, ※, !, ?, @, #, \$, %, ^, ππ, ττ, &, *) 등을 삭제하였다. 또한, 반복된 글을 게재하여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이용된 신문기사, 인용 텍스트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선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위 ‘도배글’도 제

거하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텍스트는 광고성 글로 판단하여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대출상담 및 안내’,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특정 학원이나 단체의 ‘취업 관련 교육생 모집공고’, ‘불법 다단계 모집안내’, 사행성 오락과 관련된 ‘불법 도박 사이트 안내’ 등의 게재한 글을 삭제 처리하였다. 다만 이런 부류의 글들은 실제 취업 준비생이 작성한 내용이 아니므로 토픽 분석에서 제외되었지만, 다수의 글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대학생의 경우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노동세계의 불안정을 겪고 있어(유형근, 2014) 결국, 취업 준비생인 청년층은 아직 경제적인 소득이 없거나 낮아 개인적인 소비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취약소비자(김성천, 2014)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데이터 정제 과정 후, 최종적으로 부산대학교와 (주)나라인포테크가 공동 개발하여 프리웨어로 사용 가능한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활용하여 맞춤법 검토를 수행하였다. 단, 최근 이용자들 간에 사용되는 은어나 속어 등은 맞춤법에 따라 변경하지 않고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이유는 이는 사회 언어학 측면에서 어떠한 사회 계층이나 집단에서 쓰이는 언어 행위이므로 어떤 특정 계층의 언어가 저속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김택구, 2000). 특히, 이 같은 언어행위는 당시 사회적 상황을 드러내며 은어와 속어는 언어적 유희에 치중하는 현상과 또래 집단만이 알 수 있는 은어적 기능이 강화된 결과로 특별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동질감 속에 귀속의식을 고취하고자 공통의식을 갖는 언어를 사용(박덕유, 2008)하므로 청년층의 의식변화를 고찰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표 1>은 분석을 위해 수집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수집된 3년간의

〈표 1〉 연도별, 월별 수집된 메시지(단어) 정보 현황

2013년	메시지 개수	단어개수 (문자 수)	2014년	메시지 개수	단어개수 (문자 수)	2015년	메시지 개수	단어개수 (문자 수)
1월	4,482	153,781 (527,331)	1월	5,525	192,907 (648,392)	1월	2,975	107,926 (369,269)
2월	4,383	146,128 (493,780)	2월	6,379	227,477 (760,153)	2월	2,665	90,554 (310,572)
3월	5,572	184,214 (617,597)	3월	6,743	239,511 (806,651)	3월	4,074	128,107 (435,275)
4월	6,800	224,129 (754,434)	4월	5,218	179,100 (603,566)	4월	3,962	124,196 (418,642)
5월	6,336	221,326 (744,865)	5월	5,917	206,344 (692,528)	5월	4,107	116,911 (394,564)
6월	5,118	190,214 (636,583)	6월	4,590	153,327 (517,264)	6월	3,739	113,033 (380,858)
7월	5,493	187,698 (624,523)	7월	4,537	153,477 (515,963)	7월	3,119	100,572 (341,342)
8월	5,149	176,320 (591,554)	8월	4,180	142,171 (483,536)	8월	3,439	113,835 (379,783)
9월	6,724	225,867 (747,347)	9월	2,977	96,368 (332,504)	9월	3,281	116,042 (381,786)
10월	6,003	201,096 (670,365)	10월	3,556	109,627 (381,145)	10월	2,275	81,096 (270,010)
11월	4,737	161,842 (534,258)	11월	3,339	110,981 (376,958)	11월	2,312	81,487 (276,899)
12월	4,124	146,112 (480,465)	12월	3,649	120,041 (407,923)	12월	1,437	51,674 (179,165)
합계	64,921	2,218,727 (7,423,102)	합계	56,610	1,931,331 (6,526,583)	합계	37,385	1,225,433 (4,138,165)

메시지 개수는 총 158,916개이며, 총 단어(문자) 개수는 5,375,491(18,087,850)개로 파악되었다.

수집된 데이터의 특이점은 욕설이나 속어, 은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토픽 분석 전에 해당 단어의 속뜻과 사용자의 활용 형태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였다. 특히, 이용자들은 욕설, 특히 ‘성기’ 관련 욕설 단어를 빈번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미취업이나 취업상황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하기 보다는 감정적으로 ‘거부’나 ‘불쾌’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와 평소 습관적인 언어사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아주 나쁜’ 정도를 나타내는 ‘좃-’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서(게시글 예시: “미래없는 인생 참 개좃같다”,

“취직 못하는게 좃같은게 아니라 뭘 해야 좋을지 모르는게 좃같다”) 자신들이 접하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 불안감과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전병용, 2012).

또한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빗대어 표현한 단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비유적 표현은 사람들이 특정 대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고(思考)가 반영된 것이다(이종열, 2003). 대표적 어휘로 ‘좃소기업(중소기업)’, ‘노예(근로자, 일하는 사람)’, ‘추노(하다)(그만두다)’, ‘지거국(지역거점 국립대학교)’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런 현상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

직업의 지위가 높고 낮음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과 평가인 직업 위세(prestige)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유홍준과 김월화, 2014). 실제 이용자 글을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이 나를 얹맨다면 이제 더이상 형제로 남지 않겠다. 어어어 추노 소행 오늘부로 추노입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라 불리는 이유 가지. 사장들 마인드가 노예메이커. 광고는 사람을 중요시 사람을 위한기업 이질알.....”, “대기업으로 불리는 이유는 사내복지 때문이지 중소기업은 일반 존나시키고 대우가 좇같거든.....”, “대기업은 좋은 대학 스펙좋은애들이 우선선택권을 가진다 니네들까지 기회는 오지않지 나머지는 밀리고 밀려서 찌리 중소기업 구멍가게나가거나 그나마 중견기업이나 들어가려면 다른 뭘가로 공략해야겠지”.

특히, ‘추노(하다)*’란 신조어는 원래 도망친 노비(奴婢)를 체포하여 찾아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최근에는 근무조건이 열악하거나 고용자·관리자 등이 욕설이나 반말을 쓰면서 노동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다가 말도 없이 잠수를 타거나 도망간다’란 의미로 변모하여 사용되고 있다. 상기한 단어들은 주로 특정 대상을 ‘물건(예: 노예)’, ‘적(예: 스펙 좋은 애들, 좋은 대학)’, ‘근(예: 얹맨다, 남지 않겠다)’ 등으로 개념화하여 사용자의 기본적인 감정(화냄, 두려움, 미움, 긴장 등)(임지룡, 2002)을 나타내고 있다. 즉, 최근 중소기업 인력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특정 직업에 대한 선호나 기피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직업위세가 작용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입사 기피나 재취업을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취

업 준비생들이 취업을 통해 구성원-조직 간의 교환관계(Blau, 1964) 측면에서 구성원은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조직에 제공함으로써 인격체로 대우받고 경제적·사회심리적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심리적 불안상태로 인해 자신의 진로장벽에 대해 높게 지각하고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나래와 이기학, 2012; 이길환 외, 2012)는 것을 알 수 있다.

2. 취업 준비생의 주요 관심사 변화

현재 취업 준비생들은 지속해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겪으면서, ‘취업’이란 특정 대상·사건을 이해하려는 성향이나 참여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인 관심을 갖게 되며 놀람, 새로움, 복잡성, 모호성 등과 같은 환경적 조건에 의해 상황적 관심(Renwick and McPherson, 2002)을 보이고 있다. 이런 관심사(interest)는 한 사람과 특정 내용영역(예: 토픽, 과제, 분야 등) 간의 특정한 관계로 집중적인 관심과 강화된 몰입 때문에 나타나며(Hidi, 2006; Hidi and Renninger, 2006; Krapp, 2002),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기억하는 원인(Ebbinghaus, 1964)이 되므로 독특한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Hidi,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취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글을 활용하여 이들의 관심사를 탐색하기 위해 SAS Enterprise Miner 12.1의 Text Miner 모듈을 사용하여 연도별 기간으로 구분하여 토픽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취업 관련 선행연구(예: 직업세계인식, 취업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등)(박성재와 반정호, 2006; 윤명희 외, 2010; 이영민 외, 2014; 임천순과 양병무, 2006;

*나무위키(2016), <https://namu.wiki/w/%EC%A3%A4%B3%A5%B8>, 뉴스와이즈(2011),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578736>

하문선, 2014)를 참조하여 주요 토픽을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취업사전준비활동,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및 취업스트레스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도 월별로 분석된 각 토픽유형의 의미와 관련 토픽용어는 <표 2>에 제시하였다(2013년과 2014년은 부록 I 참고). 첫째,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은 취업 준비생이 직업세계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을 토대로 직접(일자리 체험: 인턴, 아르바이트 등) 또는 간접(예: 재직자의 평가, 미디어 보도 등)으로 경험하거나 관찰한 결과(신선미 외, 2008)를 의미한다. 세부 토픽명 분류는 윤명희 외(2010)에서 제시한 하위분류(예: 장래 희망 직종, 기대되는 연봉, 사회적 지위, 일자리 전망, 직장유형 및 예측되는 직장생활의 어려움 등)를 참조하여 제시하였다. 해당 유형에는 '연봉, 경력, 중소기업, 사무직' 등과 같이 향후 직업 분야에 대한 관심사를 포함하였다. 둘째, '취업사전준비활동'은 보다 좋은 일자리에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직업준비학습의 노력(박성재와 반정호, 2006)과 관련된 유형을 의미한다. 특히, 예비 취업준비생들은 주로 취업을 위한 과외(課外) 활동인 어학성적, 자격증, 어학연수 등의 취업 사교육(배호중과 안준기, 2011)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스펙'이란 용어(박천수와 나영선, 2013; 어윤경 외, 2011; 이대용 외, 2011; 정범석과 정화민, 2014; 채창균과 김태기, 2009)를 활용하여 세부 토픽명으로 명명

하였다. 셋째,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은 '괜찮은 일자리 기준, 직업채용기준, 채용과정, 취업기회(윤명희 외, 2010)' 등에 대한 관심사를 포괄한 유형으로 '면접, 연락, 질문, 이력서, 서류'의 토픽용어들이 나타났다. 끝으로 '취업스트레스'는 학업과 졸업 후 취업 관련 문제로 신체적, 심리적 평행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이용길과 강경희, 2011)로 취업을 앞둔 사람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으로 토픽을 취업불안(조규관, 2008)과 진로장애로 세부 분류하였다. 특히 진로는 한 개인의 삶 전반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들(Super, 1957)로 한국의 상당수 대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장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전공이나 학과를 선택하고 있어 진로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이보현 등, 2013). 그래서 현재 취업난에 따른 부정적 사건에 따른 개인의 진로선택과 목표, 동기나 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진로장애(career barrier)(이상희, 2006)는 진로발달에 있어 갈등과 혼선을 가져올 수 있어 향후 진로의사결정에 자신감을 저하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정민과 노안영, 2008). 주요 토픽용어는 취업불안의 경우에 '같다, 싫다, 시간, 못하다, 일하다' 등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장애의 경우에 '같다, 인생, 결혼, 혼자, 군대' 등으로 나타났다.

<표 2> 취업 준비생의 토픽분류 결과

(2015년도_1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알다 생각하다 같다 되다 아니다 대학 생각 모르다 못하다 인생 싶다 좋다 그렇다 백수 나오다 힘들다 친구 이렇다 좇같다 나가다	30.04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2	자격증 취업 산업 토익 기능사 학점 시급 따다 졸업 경력 학년 전문대 정비 위험물 준비 졸업하다 가능하다 용접 공부하다 영어 시험	25.26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3	면접 연락 질문 이력서 같다 취업 합격 전화 채용 아니다 지원하다 물어보다 연봉 시키다 알다 합격하다 기업 지원 쓰다 뽑다 공고	14.74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4	시간 연봉 월급 받다 생산직 일하다 퇴근 하루 출근 쉬다 사무직 힘들다 잔업 되다 나오다 수당 시급 경력 업체 주말 급여 초봉	29.96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기대되는 연봉

(2015년도_2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시간 하루 같다 연봉 월급 일하다 받다 출근 퇴근 알다 아니다 좋다 되다 나오다 생각 약간 생각하다 힘들다 생산직 싶다 시급	50.28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2	취업 되다 자격증 기능사 토익 아니다 좋다 학점 면접 졸업 경력 닦다 싶다 같다 취업하다 산업 기업 알다 생각 생각하다 따다 쓰다	49.72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2015년도_3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일 같다 싶다 아니다 되다 알다 모르다 친구 생각하다 인생 나오다 생각 좋다 일하다 나이 시절 그렇다 시간 못하다 하루 좇같다 백수	28.71	취업 스트레스	취업불안
2	취업 자격증 토익 학점 기능사 산업 경력 졸업 시급 전문대 시험 면접 취업하다 학년 지원 되다 영어 나이 따다 공부하다 졸업하다 가능하다	24.69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3	연봉 시간 면접 생산직 시급 일 사무직 퇴근 받다 평균 공무원 수준 출근 기업 생산 수당 중소기업 전화 나오다 하루 알다 야근 일하다	26.85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기대되는 연봉
4	시설관리 월급 받다 경력 일 시간 힘들다 일하다 자격증 시설 되다 기능사 쌓이다 병원 랜찮다 따다 하루 산업 같다 낫다 쌓다 오르다	19.75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유형

(2015년도_4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자격증 기능사 따다 취업 산업 시설관리 경력 학원 국비 시설 위험물 용접 공부하다 나오다 전문대 따다 졸업하다 시급 토익 지원	19.30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2	시간 출근 야근 일하다 퇴근 출근하다 되다 하루 퇴근하다 쉬다 조선소 잔업 월급 썼다 노예 일어나다 되다 주말 버스 싶다 토요일	20.52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3	친구 싶다 같다 되다 생각 인생 못하다 아니다 백수 좋다 모르다 그렇다 생각하다 일하다 조선소 알다 좇같다 쓰다 힘들다 과멸	27.11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4	면접 연락 연봉 이력서 서류 전화 받다 냅다 질문 지원하다 떨어지다 지원 나오다 되다 알다 같다 물어보다 취업 줄다 뽑다 중소기업	14.70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5	생산직 경력 연봉 정년 기술 생산 기업 좋다 월급 아니다 들어가다 받다 힘들다 하청 보장 반도체 되다 같다 전자 싶다 미래	18.37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유형

(2015년도_5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자격증 시설관리 경력 기사사 공무원 산업 시급 시설 나이 따다 연봉 받다 되다 생산직 토익 취업 기술 시험 학점 인생 따다 아니다 좋다	25.76	취업 스트레스	취업불안
2	시간 일하다 하루 월급 받다 쉬다 야간 연봉 퇴근 출근 잔업 노예 같다 힘들다 생산직 주말 토요일 특근 수당 휴무 출근하다 들어간다	26.16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3	아니다 같다 싫다 되다 인생 말 생각 친구 백수 알다 나이 못하다 좇같다 결혼 생각하다 그렇다 좋다 한국 벌다 힘들다 직장 죽다 쓰레기	31.10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4	면접 이력서 연락 나오다 취업 전화 되다 연봉 물어보다 지원하다 기업 서류 지원 채용 사무직 냅다 합격 떨어지다 최종 생산직 이렇다	16.99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2015년도_6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자격증 사무직 토익 공무원 생산직 취업 학점 준비하다 시급 어땀다 전문대 공부하다 공기업 따다 영어 인생 연봉 경력 준비 시험 기사사	22.35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2	같다 인생 좋다 생각 아니다 친구 못하다 백수 모르다 알다 생각하다 그렇다 얼굴 치킨 혼자 힘들다 만나다 이렇다 결혼 죽다 엄마 쓰레기	26.78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3	시간 연봉 일하다 하루 퇴근 출근 받다 월급 주말 쉬다 잔업 시급 노예 토요일 같다 휴무 퇴근하다 출근하다 아니다 야근 퇴직금 야간	25.57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4	면접 생산직 연락 이력서 전화 아웃소싱 전화하다 중소기업 물어보다 연봉 같다 뽑다 지원하다 알다 지원 냅다 서류 아니다 경력 나오다	16.22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5	한강 물 물아 강물 죽이다 백수 나르다 오르다 연봉 데려가다 쓰레기 겁어삼키다 파멸 죽 치킨 노마 오오다 부르다 풍덩 받다 일렁이다	9.09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2015년도_7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싫다 시간 되다 같다 면접 일하다 아니다 말 하루 받다 좋다 월급 모르다 알다 힘들다 생각 인생 직장 그렇다 백수 못하다 출근	52.76	취업 스트레스	취업불안
2	취업 자격증 산업 경력 학년 기사사 생산직 학점 토익 따다 정비 전문대 아니다 생산자 들어가다 공무원 대학 공부하다 되다	47.24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2015년도_8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같다 시간 되다 아니다 일하다 싫다 받다 좋다 알다 하루 월급 면접 그렇다 힘들다 모르다 생각 연봉 야간 쉬다 친구 벌다 직장	54.72	취업 스트레스	취업불안
2	자격증 취업 따다 시급 공무원 한강 산업 학점 감세 토익 한세상 기사사 취업하다 사무직 되다 면접 경력 생산직 즐겁다 공부하다	45.28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스펙준비

(2015년도_9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같다 되다 싫다 생각 좋다 인생 아니다 모르다 생각하다 친구 알다 죽다 그렇다 마음 못하다 백수 혼자 힘들다 직장 만나다 인간 되다	31.51	취업 스트레스	취업불안
2	자격증 시급 취업 학점 공무원 토익 사무직 생산직 기사사 산업 되다 졸업 따다 가능하다 공부하다 연봉 준비 경력 어학 전문대 전산 취직	23.99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3	면접 연락 이력서 뽑다 전화 취업 서류 같다 좋다 알다 채용 추석 떨어지다 지원하다 절분 끝나다 냅다 결과 월급 연봉 합격 기다리다	16.88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4	시간 하루 받다 일하다 출근 퇴근 월급 연봉 출근하다 생산직 쉬다 야간 아니다 버스 주말 사무직 수당 시급 토요일 노예 통근 퇴근하다	27.62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2015년도_10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시간 하루 출근 퇴근 일하다 쉬다 출근하다 월급 일당 퇴근하다 야간 힘들다 시급 나가다 토요일 어렵다 생각하다 서울 갔다 일해 주말	20.55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2	토익 자격증 산업 학점 취업 공부 시급 학년 인생 경력 친구 공무원 영어 노무 심대 기능사 가능하다 공기업 준비하다 공부하다 졸업 따다	20.02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3	같다 싶다 좋다 되다 인생 친구 모르다 알다 생각 아니다 힘들다 그렇다 혼자 죽다 못하다 생각하다 노예 마음 공부 백수 열심히 벌다	25.92	취업 스트레스	취업불안
4	면접 연봉 이력서 연락 서류 되다 취업 물어보다 전화 날다 받다 어떻게 지원하다 알다 합격 나오다 아니다 뽑다 쓰다 합격하다 월급 아직	14.34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5	생산직 연봉 받다 월급 사무직 좋다 같다 일하다 중소기업 낫다 들어가다 생산 기술 잔업 줄다 기업 싫다 초봉 경력 평균 시급 벌다	19.17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기대되는 연봉

(2015년도_11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싫다 시간 되다 같다 면접 일하다 아니다 말 하루 받다 좋다 월급 모르다 알다 힘들다 생각 인생 직장 그렇다 백수 못하다 출근 나오다 쉬다	52.76	취업 스트레스	취업불안
2	취업 자격증 산업 경력 학년 기능사 생산직 학점 토익 따다 정비 전문대 아니다 생산자 들어가다 공무원 대학 공부하다 되다	47.24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2015년도_12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회공 전기기능사 상경 내신 출결 입학하다 계열 전형 문대 전역 문과 진화기 지거국 캐드 학벌 늦 진지하다 한국사 산기 취득하다 가스	22.98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전공학과와 취업기회인식)
2	주간근무 포함되다 금 월화 양산 임금 조교 기간 이면 토 매달 후자 월요일 생산 출퇴근 저녁 수습 직영 잔업 포함 휴무 일요일 보너스	26.13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3	전쟁 정신력 뺨 피자 고통 자식 늦 운동 사람들이 주변 죽이다 탈 주석 친하다 짜증나다 사회생활 과거 먼저 싫어하다 행복하다 침 게임	23.67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4	확률 자기소개서 급하다 후기 기도 열람하다 취준생 확인 모집 갤러 게시물 고용 참고하다 뜨다 정장 사람인 채용공고 기보 문자 공급하다	17.37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5	강사 스쿨 온라인 프리토킹 역사책 넓히다 벌다 공부 영어실력 이책 재미있다 출신업마 꼬박꼬박 입문서 외국계 토스 과제 수강료 역사	9.85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앞서 정의된 네 가지 주요 토픽유형(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취업사전준비활동,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취업스트레스) 분류에 따른 각 토픽별 주요 기술용어 및 관련 이용자의 게시글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토픽유형에는 주로 ‘시간, 연봉, 시급, 수당’과 같은 금전적인 보상과 ‘퇴근, 출근, 잔업, 힘들다’와 같은 직장근무형태에 대한 관심사가 나타났다. 관련 주요 게시글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사무직이다 새벽 00시까지 일하고 연봉 00백 출근 00시분 퇴근 00시지만”, “쫓소는 근무시간을 너무

뺏쳐서 문제임 적혀있으면 거의다 00시 아니면 00시분까지 잔업해야함”,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 잔업이 없는 날이여만 하지만 쫓소는 그런것쯤 가볍게 씹고 야근.....”. 이는 기존 연구들이 청년구직자의 중소기업 입사기피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취업눈높이(신동준과 류지영, 2011, 오호영, 2012)가 아닌 대한상공회의소(2012)에 제시된 중소기업 기피 원인인 ‘근무 및 생활환경’, ‘적절한 업무 강도’, ‘출퇴근 용이성’ 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취업준비생 개인은 진로결정을 위해 직업 또는 직업 활동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나타내는 직업가치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김정숙, 2006).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직업을 돈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개인이 직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적 특성이 일치하지 않아 향후 해당 직업 분야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예: 추노) 낮은 직업만족도(예: 좇소기업)를 나타냄으로 개인적이나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이옥, 1993). 반면 최근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해 일이나 의무로부터 해당하는 자유로운 시간인 여가(Murphy, 1981)를 누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은 성과향상과 구성원의 직무 및 조직만족도 개선을 위한 직장생활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호의적인 직장환경 조성차원에서 ‘구성원 복지, 쾌적한 근무환경, 가족적인 문화’ 등에 대한 보다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Park *et al.*, 2015). 왜냐하면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Blau, 1964)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지지와 도움에 대해서 보상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므로 이런 기업의 노력은 조직에 대한 우호적인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취업사전준비활동’ 토픽유형을 살펴보면, 취업준비생들은 ‘자격증, 어학(토익) 등’이나 공무원 시험 또는 특정 전공학과 진학이나 학점에 관한 국한된 활동에 주로 관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취업준비생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이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역량 학습과 무관하다는 인식과 취업경쟁에서 차별성을 갖기 위한 스펙 쌓기(김유빈, 2015)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취업준비생들의 다양한 노력은 취업의 첫 관문인 서류전형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적 역량 확보에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발생하는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능력인 역량(고재성 외, 2010)과도 상이하여 취업 성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조규락과 구준영, 2014). 따라서 취업준비생 개인은 자신의 올바른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진로준비행동(김봉환과 김계현, 1997)이나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한 자신의 특성에 대한 평가와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인 진로탐색활동(최동선과 정철영, 2003)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에 대한 토픽유형은 ‘채용과정’에 대한 관심사가 주로 나타났다. 특히, ‘면접, 연락, 이력서’ 등의 주요 토픽용어들이 도출되었다. 이용자들의 게시글을 살펴보면, “이번주 면접본곳 다음주에 연락준다더만.....”, “면접했는데 합격 탈락 여부 전화 OO시까지 준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음 근데 떨어져도 연락준다고 했는데 왜 연락이 없냐”, “면접 본 데에서 똑같은 인원수로 똑같은 모집공고..... 또 낸 건 무슨 상황이나”, “영어면접 보려면 아예 프리토킹 가능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예상답안 외워가면 되냐 어떡해야 단기에 올릴 수 있는지”, “면접때 어떻게 하면 점수 잘 받나” 등이 나타났다. 이는 면접단계가 일반적인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이력서, 자기소개서 검토)을 통해 일정 인원만 추려낸 다음 진행과정으로 취업당락을 결정하는 최종 관문일 수 있어 지원자 관점에서 심리적인 초조함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술한 것처럼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채용 진행과정에서 지원자와의 상호작용 중 절차공정성 인식에 실패하고 있다. 개인들은 절차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지각할 때,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고 집단내부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집단화합에 반하는 개인적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한광현, 2006). 즉, 취업준비생은 불공정하거나 절차공정

성이 결여된 기업의 면접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이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취업실패로 인한 좌절감에 빠질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국내 다수의 중소기업이 채용인력을 모집·선발하기 위한 체계적 시스템(인력, 제도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에서 이런 부적절한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취업준비생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탐색을 지향하고, 면접을 단순히 취업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여 자신을 과도하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만들기 위한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 차원에서 단기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전략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2015년 1월의 ‘취업 스트레스’ 토픽의 경우, 토픽 가치치 순으로 ‘알다, 생각하다, 같다, 되다, 아니다’ 등의 단어가 추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이쪽계통 알다시피 괜찮은 회사도 없고.....”, “OO중반인데 결혼빨리 해야지 주위에서 아우성 하면 그럴까 하고 생각하다가 연애는 뭘 알아야 하지”, “막장 인생인데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중이고 내가 알고 싶은건 결혼은 할 수 있는 지.....” 등의 이용자 글에 포함된 ‘알다’는 사람이 사실·상황·대상에 대해 의식 또는 생각을 의미한다(박종호, 2012). 하지만 이들은 ‘알다시피, 뭘 알아야, 알고 싶은~’로 표현하면서 심리적으로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취업준비생들이 한 사람을 독특한 개인으로 만드는 개인이 속한 맥락에서 미취업 상태로 인해 인생과정에서 사회적 역할이 발달되지 못하여 심리적 괴로움이 증가하며 일에 대한 기대 및 직업에 대한 탐색동기가 저하되어(장휘숙, 2008; Mortimer, 1994) 취업 스트레스 중 진로장애를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현재 취업준비생들은 실제 객관적으로 특출난 재능이나 달성한 과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자기애적 성향(차타순, 2002)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직 노력을 안 했을뿐 노력만 하면 성공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 “진짜 살기 좇 같으면 해외이민 준비나 스스로 준비 실패시 좇 소에 OO년이상 박혀있다가 이민 컨설팅업체에 OO천 투자해서 이민.....”, “재능이 있어도 부모가 뒷받침되지 않는이상 성공힘들다.....”, “내가 고등학교때 공부로 억압당하지만 았았다면 지금 제일 잘나가고있었을텐데 비참하다..... 부모 잘못 만나고 주변에 이상한 새끼들만 꼬여서 인생 말아먹었다” 등을 보면, 이들이 주변 사람들을 자신을 무시하거나 적대하는 인물로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공격을 받았다고 느끼게 되면 격렬한 분노나 적대감을 표출하는 특징을 보인다(차타순, 2002). 이 같은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이나 실패를 진로장애로 인지하게 되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줄 모르거나 기성세대를 무시하거나 불복종하는 등의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특성이 나타나 취업스트레스 요인이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이수정과 이해선,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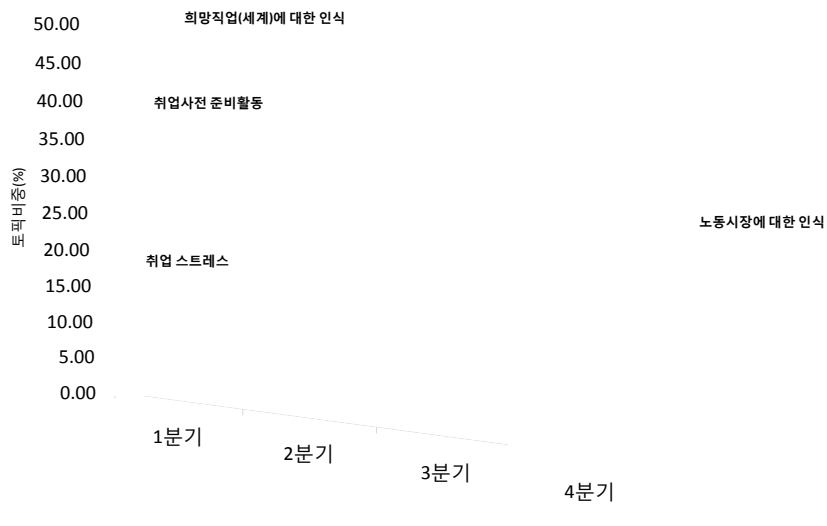
그 외에도 “진짜 미칠거같다 주위에친구들은 전부 일하고있고 나만 소외되는거같고.....”, “취업고민도 만성화가 되다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거의 매일 반복되고 만성화가 되다보니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안생김”, “머한민국에선 공부는 필수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머한민국에서 행복은 성적순이다” 게시글 내용에 나타난 ‘-같다’는 화자인 본인(취업준비생)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보지 않은 사건/사태에 대해 주변의 정황적 증거나 정황에 따라 추론하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표현(김해연, 2011)으로 자신이 현재 또는 미래의 목표를 위해 필요한 준

비와 노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아니다’란 표현은 부정 외에도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남길임, 2010)로 취업준비생 자신이 취업 관련 노력을 하더라도 기대되는 결과(예: 취업, 원하는 연봉 등)를 얻기 어렵다고 단정하거나 취업준비활동(예: 학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취업 성공으로 연계되지 않는 상황에서 좌절감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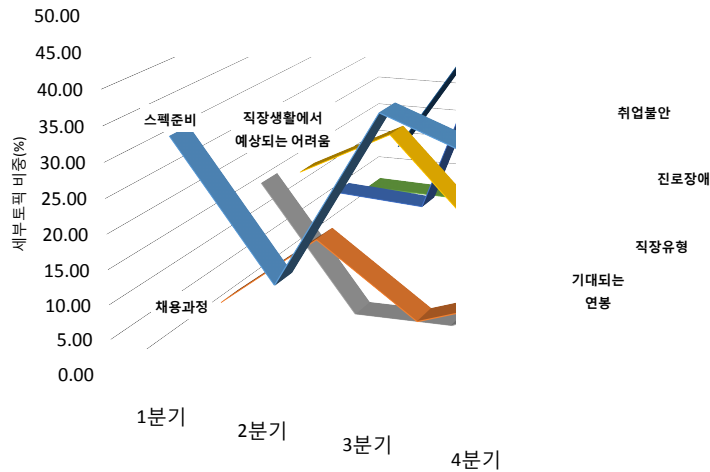
<그림 2>는 2015년도 토픽(비중)변화를 살펴본 그래프이다. 전체적으로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토픽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세부적으로 ‘취업불안’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수준으로 변화하며 이후에는 미취업 상태에 머물면서

‘진로장애’에 대한 인식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스트레스’ 토픽비중이 하반기로 가면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향후 구직단념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취업사전준비활동’ 유형은 국내 기업들의 상반기 공채가 시작되는 3월 이전에 관심이 증가하였다가 다시 하반기 공채기간에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 소위 ‘스펙 쌓기’를 위한 취업준비생의 취업활동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 분기별 토픽변화



(b) 분기별 세부토픽변화



<그림 2> 2015년도 토픽(비중)변화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취업 준비생의 주요 관심사를 파악하고자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반응 및 변화추이를 탐색하였다. 특히, 취업 갤러리라는 취업 관련 국내 최대 커뮤니티에 게재된 최근 3개년(2013~2015) 동안의 메시지들을 통합하고, 토픽 분석을 통해 취업 준비생들의 주요 관심사를 분석하여 현재 이들이 처해 있는 취업난의 원인을 재탐색했다는데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취업 성공결정 및 취업자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다양한 변수를 토대로 취업준비생의 메시지를 네 가지 토픽 유형(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취업사전준비 활동,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취업스트레스)으로

체계화하고 세부 관심사를 도출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직업 관련 연구들은 설문이나 인터뷰 도구를 통해 응답자의 반응과 관심사를 분석하였지만,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응답자 표집이 한정되어 있어 사람들의 실제 반응(예: 현재 취업시장에 대한 불만, 직업에 대한 태도 등)을 탐색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실제 이용자들이 현실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는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Becker *et al.*, 2011)인 소셜 미디어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취업시장의 상황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을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현재 취업준비생의 주요 관심사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해당 관심사가 도출된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는데 학문적·실무적인 시사점이 있다. 선행연구들의 경우, 취업

난의 원인을 개인의 성향이나 동기요인(예: 구직자의 눈높이, 직업관, 구직노력 등) 또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예: 경제위기, 고학력화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은 생애주기 측면에서 사람들이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과정(박수미, 2002)으로 최근 극심한 취업난은 사회경제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므로 사회란 환경에 속한 개인들의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토픽 분석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이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주로 연봉, 직장유형(생산직 vs. 사무직, 정년보장)에 관심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 직업세계에게 여전히 직업위세(유홍준과 김월화, 2006)가 작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차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인 불안으로 인해 더욱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나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및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자아를 바라보는 관점인 자야개념(신승원, 2013)이 확립되지 못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장애를 인식하고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어 근본적인 미취업원인과 취업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분기별 토픽변화에 관한 분석결과, 현재 취업준비생들은 본인의 적성, 희망직업에서 요구되는 역량 및 희망직업(세계) 분야에 대한 탐색노력을 지속해서 유지하지 않고 특정 구직기간에 국한되어 관심을 보이며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자신의 진로장애인식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같은 취업난의 원인은 개인의 직업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미확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직자들이 자신의 직업능력수준과 경력개발에 필요한 직업정보를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의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기존 출처로부터 얻은 자료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무엇을 분석할지 결정하기 위한 특정 증거를 활용해야 한다(Hair *et al.*, 2015). 이에 본 연구는 취업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변수들을 기준으로 취업준비생의 반응과 취업준비 형태를 재탐색하였다. 특히 최근 심각한 취업난이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의 주요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내 이용자 규모가 가장 큰 커뮤니티에서 특정기간(2013~2015년) 동안 게재된 모든 텍스트를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표본프레임의 설정과정에서 여전히 일반화에 제약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존 텍스트 분석 연구들은 특정 출처(예: 페이스북, 트위터, 커뮤니티 게시판 등)를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가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해당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자료수집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인원은 표본에서 제외될 수 있다(Hargittai, 2015). 따라서 향후 텍스트 분석 연구는 표본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가능성에 유의하여 연구 대상자의 특성, 행동, 관점 등에 관한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시장 변화에 따른 취업준비생의 관심사의 심층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계층의 감성(emotion)에 기반을 둔 심리·언어적 분석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취업준비생들은 자신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지만 깨뜨릴 수 없는 유리장벽(glass ceiling)(Avin *et al.*, 2015)에 의해 ‘진로장애’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지거국(지역거점 국립대학교)이란 어휘로 표현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들의 심리적 상태나 상황에 대한 평가가 새로운 신조어나 욕설어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향후 텍스트 분석연구는 심리적·언어적 해석을 통해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감성(emotion)에 대한 향후 연구가 요구된다. 감성은 사람들이 접하는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부여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요한 목표와 관련된 사건의 발생을 암시할 수 있고 사전에 준비된 행동을 바꿀 수 있다(Frijda, 1986; Pinder, 1998). 예를 들어 취업준비생은 현재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쓸모없고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부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치(shame)라는 감성(Tangney and Salovey, 1999)을 표현하게 되며, 외부적으로 화를 표출하거나 상황을 회피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어(Tangney and Dearing, 2002) 적극적인 취업준비행동보다 지속적인 취업스트레스 각성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취업준비생의 감성유형과 이로 인한 태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최근 취업난은 취업준비생 개인 및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적 문제로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개인의 의사결정 시 요구되는 정보처리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행동은 특정 사건의 객관적인 특성보다 환경 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통해 나타나므로 취업준비생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여부는 불확실한 취업환경 하에서 정보의 격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스킬습득이나 다양한 직업정보습득보다 자신의 직업적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한국고용정보원, 2014). 이런 의미에서 개인이 자신의 특성과약을 통해 적합한 직업 관련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직업흥미, 적성, 진로)의 활용과정과 제도적 역할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재 취업준비생이 겪고 있는 진로 및 직업가치

관 미확립으로 인한 취업불안의 원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많은 취업준비생은 초기경력 과정으로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입사를 희망하고 동일한 준비과정에 열중하고 있어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연구는 또 다른 일자리 형태인 창업에 대해 취업준비생들이 느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하규수, 2012), 창업애로사항(박광오·안진우, 2015)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현상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관심사 탐색뿐만 아니라 창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실증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감미아·송민(2012),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신문사에 따른 내용 및 논조 차이점 분석”, *지능정보연구*, 18(3), 53-77.
2. 강순희·안준기(2010), “대졸자의 실업경험의 낙인효과”, *한국경제연구*, 28(2), 201-231.
3. 고경필·심미영(2015),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6), 379-391.
4. 고재성·이건남·김성남·변정현(2010), “청년층 구직역량 개념 정의 및 가중치 분석”, *직업교육연구*, 29(2), 17-42.
5. 김나래·이기학(2012), “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175-191.
6. 김봉환·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

- 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7. 김성천(2014), “취약소비자 보호법제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1-119.
 8. 김정식·김완석(2008), “사회변동의 지각과 주관적 안녕감: 대처자원의 효과에 대한 국가간 차이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19-45.
 9. 김택구(2000), “대학생 사회의 은어고찰(2): 은어 조어의 영역별 빈도와 조어유형의 다양성”, *人文科學研究*, 8, 38-71.
 10. 김용학(2007), *사회연결망이론: 개정판*. 박영사.
 11. 김유빈(2015),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 *노동리뷰*, 5-14.
 12. 김정숙(2006), “학생의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79-102.
 13. 김진성(2012),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지역 기업과 구직자로부터의 지식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22(2), 141-147.
 14. 김혜연(2011), “국어 담화에서의 ‘-는 것 같다’의 화용적 의미와 상호작용적 기능”, *언어와 언어학*, 52, 25-51.
 15. 김현·백미정(2010), “연구논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웹 인터페이스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1), 80-93.
 16. 남길임(2010), “‘아니다’의 사용패턴과 부정의 의미”, *한국어 의미학*, 33, 41-65.
 17. 대한상공회의소(2012),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사 및 미스매치 실태조사*, 2012년 4월.
 18. 문주영(2009),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비서학의 지적구조 이해”, *한국비서학회*, 18(1), 83-98.
 19. 민기영·김훈태·지용구(2014), “철강산업 트렌드 분석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도입 연구 - P社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9(3), 51-64.
 20. 박광오·안진우(2015),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4(3), 303-315.
 21. 박덕유(2008), “국어학: 사회언어학적(社會言語學的) 관점에서 본 대학생(大學生)의 의식 변화 고찰-은어(隱語)와 속어(俗語)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0(단일호), 515-544.
 22. 박성재·반정호(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29(3), 29-50.
 23. 박수미(2002),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36(2), 145-174.
 24. 박자현·송민(2013),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1), 7-32.
 25. 박종호(2012), “인식 동사 ‘알다’의 속성 분석”, *언어사실과 관점*, 30, 81-106.
 26. 박천수·나영선(2013), “대학생의 노동시장 이행에서 외국어와 직업훈련의 연관효과”, *직업교육연구*, 32(6), 1-20.
 27. 배정환·손지은·송민(2013),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2012년 한국대선 관련 트위터 분석”,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19(3), 141-156.
 28. 배호중·안준기(2011), “대학생의 취업 사고육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教育財政 經濟研究*, 20(4), 99-124.
 29. 선문대학교(2008), *Mismatch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안수립, 충청남도 R-Pack사업 최종보고서*.
 30. 송혜지·박경수·정혜은·송민(2013),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한국의 경제연구

- 동향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 8, 47-50.
31. 신동준 · 류지영(2011), “대졸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 분석”, *The HRD Review(한국직업 능력개발원)*, 14(2), 148-168.
 32. 신선미 · 정경아 · 구정화(2008), “여대생의 직업 세계 인식 실태 조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8, 1-243.
 33. 신승원(2013),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Andragogy Today*, 16(1), 21-44.
 34. 어윤경 · 김동일 · 이주영 · 정여주(2011), “대학생용 취업준비행동 검사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학연구(구 안암교육학연구)*, 17(3), 267-291.
 35. 오호영(2012), “청년층 취업난과 미스매치”, *The HRD Review*
 36. 오호영 · 송창용(2010), “청년층 취업눈높이 결정요인과 노동시장 성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7회 한국교육고용패널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37. 유홍준 · 김월화(2014), “연구논문: 한국형 직업위세 측정 척도 개발”, *조사연구*, 15(3), 1-29.
 38. 윤명희 · 신현순 · 서희정(2010), “대학생의 직업세계 인식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29(4), 305-327.
 39. 윤승진 · 김수환 · 신경식(2015), “데이터 마이닝과 텍스트 마이닝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병사 사고예측 모델 개발”, *지능정보학회*, 21(3), 23-39.
 40. 이길환 · 이덕로 · 박상석(2012), “성격 5 요인이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영과 정보연구*, 31(4), 397-432.
 41. 이대용 · 류동희 · 김인환 · 고태용(2011), “한국대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2), 41-68.
 42. 이보현 · 두흔 · 이은정 · 장선희 · 정선화 · 이상민(2013), “대학생의 특성불안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 있어 진로의사결정유형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383-1400.
 43. 이상희(2006), “대학생의 성향변인,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99-417.
 44. 이수정 · 이혜선(2006), “비행청소년의 비행특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2), 1-18.
 45. 이아라 · 이주영 · 김계현(2013), “예방상담학적 관점에서의 국내 청년실업 연구동향과 개입방안”, *상담학연구*, 14(1), 115-141.
 46. 이영민 · 이수영 · 임정연(2014), “대학생 선호직장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53(1), 337-374.
 47. 이옥(1993), “한국 학생청소년의 직업개념인식과 직업가치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5, 32-44.
 48. 이용길 · 강경희(201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 분석: 공학 및 사회계열을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14(2), 60-67.
 49. 이재운 · 문주영 · 김희정(2007),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적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 41(1), 345-372.
 50. 이제경 · 김동일(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심리적 특성”, *상담학연구*, 5(4), 993-1016.
 51. 이종열(2003), “한국어 비유 표현의 개념적 통합 양상”, *담화와 인지*, 10(1), 167-190.
 52. 이혜영 · 광승진(2011), “국내 학술지 논문의 주제어를 통한 학술연구분야 관계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 22(3), 353-371.
 53. 임시영 · 임용민 · 이재용(2014),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U-City와 Smart City의

-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22(3), 87-97.
54. 임지룡(2002), “기획특집: 기본 감정 표현의 은유화 양상 연구”, *한국어학*, 17(단일호), 135-162.
55. 임친순·양병무(2006), “대학졸업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과 취업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4(3), 1-25.
56. 장재윤·장은영·신희천(2006), “대졸자들의 취업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65-87.
57. 장휘숙(2008), “인생과정 조망과 성인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99-113.
58. 전병용(2012), “인터넷 댓글에 나타난 ‘성기’ 관련 욕설의 변이형 고찰”, *語文研究*, 74, 105-130.
59. 정민·노안영(2008), “대학생의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91-405.
60. 정범석·정화민(2014), “국내 대학생의 취업태도 및 취업준비 비용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3(4), 1-19.
61. 정영근·장민수·김혜정(2011), “대졸 고학력 노동시장 미스매치 연구”, *질서경제저널*, 14(3), 1-21.
62. 정철우·김재준(2012),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건설분야 트렌드 분석”,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12(2), 53-60.
63. 조규락·구준영(2014), “대학의 취업준비생과 기업의 채용담당자가 인식하는 구직역량 차이 비교분석”, *기업교육연구*, 16(1), 157-185.
64. 조규관(2008), “취업불안척도의 개발 및 타당도 연구”, *教育學研究*, 46(2), 53-75.
65. 조영하·김병찬·김봉준(2008), “대학졸업자의 취업성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2), 437-462.
66. 차타순(2002), “자기예적 성격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경영과 정보연구*, 10, 1-31.
67. 채민성·인관호·김응모(2012), “텍스트, 오피니언 마이닝을 이용한 SNS 친구 친밀도 분석 시스템”, *한국정보과학회*, 98-100.
68. 채창균·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2), 89-107.
69. 최동선·정철영(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22(1), 115-143.
70. 하규수(2012), “사업에 대한 태도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구 동림경영연구)*, 45, 59-74.
71. 하문선(2014), “대학생의 내, 외제적 직업가치 변화양상 및 잠재집단 유형과 성,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취, 진로성숙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33(3), 57-81.
72. 한광현(2006), “조직공정성과 신뢰 및 반생산적 과업행동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19(2), 679-702.
73. 한국고용정보원(2014), “대학생을 위한 취업교육: 진로계획 수립과 노동 시장의 이해”, *한국고용정보원*, 1-134.
74. 현윤진·김남규·조윤호(2015), “토픽 분석을 활용한 관심 기반 고객 세분화 방법론”,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2(1), 77-93.
75. 홍진성·김남규·이상원(2014), “단일 카테고리 문서의 다중 카테고리 자동확장 방법론”, *지능정보연구*, 20(3), 77-92.
76. Ahonen, H., Heinonen, O., Klemettinen, M., and Verkamo, A. I.(1997), *Applying data mining techniques in text analysis*. Report

- C-1997-23, Dept. of Computer Science, University of Helsinki.
77. Albright, R.(2004), *Taming Text with the SVD*. SAS Institute Inc., Cary, NC.
78. Antweiler, W. and Frank, M. Z.(2004), “Is All That Talk Just Noise? The Information Content of Internet Stock Message Boards”, *The Journal of Finance*, 59(3), 1259-1294.
79. Avin, C., Keller, B., Lotker, Z., Mathieu, C., Peleg, D., and Pignolet, Y. A.(2015, January), *Homophily and the Glass Ceiling Effect in Social Networks*, In Proceedings of the 2015 Conference on Innovations in Theoretical Computer Science (pp. 41-50). ACM.
80. Becker, H., Naaman, M., and Gravano, L. (2011), Beyond trending topics: Real-world event identification on twitter.
81. Blau, P. M.(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Transaction Publishers.
82. Choi, K.(2012), *Social Big Data Analysis*, Proceedings of the Spring Workshop on Korea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 Society.
83. Ebbinghaus, H.(1964), *On memory* (HA Ruger & CE Bussenius, Trans.), New York: Teachers’ College, 1913. Paperback edition.
84. Fan, W., Wallace, L., Rich, S., and Zhang, Z.(2006), “Tapping the power of text mining”, *Communications of the ACM*, 49(9), 76-82.
85. Fredrickson, B. L.(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
86. Frijda, N. H.(1986), *The emotions: Studies in emotion and social interaction*. Edition de la.
87. Hair Jr, J. F., Wolfinbarger, M., Money, A. H., Samouel, P., and Page, M. J.(2015), *Essentials of business research methods*. Routledge.
88. Hargittai, E.(2015), “Is Bigger Always Better? Potential Biases of Big Data Derived from Social Network Site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59(1), 63-76.
89. He, W.(2013), “Examining students’ online interaction in a live video streaming environment using data mining and text min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1), 90-102.
90. Hearst, M. A.(1999, June), *Untangling text data mining*, In Proceedings of the 37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pp. 3-10).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91. Hidi, S.(2006), “Interest: A unique motivational variable”, *Educational Research Review*, 1(2), 69-82.
92. Hidi, S. and Renninger, K. A.(2006), “The four-phase model of interest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41(2), 111-127.
93. Hogan, R. and Roberts, B. W.(2000), *A Socioanalytic Perspective on Person-Environment. Person-environment psychology: New directions and perspectives*, 1, Routledge.

94. Kahneman, D. and Tversky, A.(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263-291.
95. Kim, I.(2012), *The Value of Big Data and Strategy*, 2012 Big Data Search Analysis Technology Insight.
96. Kim, J.(2008), "Perception of Social Change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A Study Focusing on Social Change in Korea Between 1997 and 2000",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8(11), 2821-2858.
97. Krapp, A.(2002), "Structural and dynamic aspects of interest development: Theoretical considerations from an ontogenetic perspective", *Learning and instruction*, 12(4), 383-409.
98. Lazarus, R. S. and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99. Lewin, K.(1939), "Field Theory and Experiment in Social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6), 868-896.
100. Liu, B.(2012), "Sentiment analysis and opinion mining", *Synthesis lectures on human language technologies*, 5(1), 1-167.
101. Mooney, R. J. and Bunescu, R.(2005), "Mining knowledge from text using information extraction", *ACM SIGKDD explorations newsletter*, 7(1), 3-10.
102. Mortimer, J. T.(1994), *Individual differences as precursors of youth unemployment*. In Youth, Employment, and Society, AC Peterson, J. T. Mortimer.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03. Murphy, J. F.(1981), *Concepts of leisure* (No. Ed. 2). Prentice-Hall Inc.
104. Myung, J., Lee, D., and Lee, S. G.(2008), "A Korean product review analysis system using a semi-automatically constructed semantic dictionary". *Journal of KIISE: Software and Applications*, 35(6), 392-403.
105. Ostroff, C. and Schulte, M.(2007), *Multiple perspectives of fit across levels of analysis*. In C. Ostroff & T. Judge (Eds.), *Perspectives on Organizational Fit*, SIOP Organizational Frontiers Series (pp. 3-69). Mahwah, NJ: Lawrence Erlbaum.
106. Park, S., Song, J. H., Kim, J., and Lim, D. H.(2015), "What Makes an Organization a Great Place to Work in South Korea?", *Performance Improvement Quarterly*, 28(1), 27-48.
107. Pinder, C. C. (1998), *Human Nature: Emotions at Work*, In Work motivation in organizational behavior (pp. 81-116), Psychology Press.
108. Ramage, D., Dumais, S. T. and Liebling, D. J.(2010), "Characterizing Microblogs with Topic Models," *ICWSM*, 10, 1-1.
109. Renwick, J. M. and McPherson, G. E.(2002), "Interest and choice: Student-selected repertoire and its effect on practising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19(02), 173-188.
110. Robbins, Stephen P., and Judge, Timothy A.(2011), *Organizational Behavior*, 14th Edition. Prentice-Hall, Inc, 이덕로 · 김태열 · 박기찬 · 박원우 역(2011), 조직행동론

- 제14판, 서울: 한티미디어.
111. Salton, G., Fox, E. A., and Wu, H.(1983), "Extended Boolean information retrieval", *Communications of the ACM*, 26(11), 1022-1036.
 112. Schneider, B.(1987), "The people make the place", *Personnel psychology*, 40(3), 437-453.
 113. Sebastiani, F.(2002), "Machine learning in automated text categorization", *ACM computing surveys (CSUR)*, 34(1), 1-47.
 114. Sitkin, S. B. and Weingart, L. R.(1995), "Determinants of risky decision-making behavior: A test of the mediating role of risk perceptions and propens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6), 1573-1592.
 115. Stavrianou, A., Andritsos, P., and Nicoloyannis, N.(2007), "Overview and semantic issues of text mining", *ACM Sigmod Record*, 36(3), 23-34.
 116. Super, D. 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Vol. 195), New York: Harper & Row.
 117. Tangney, J. P. and Dearing, R. L.(2002), *Emotions and social behavior. Shame and guilt*, New York: Guilford Press, 10(9781412950664), n388.
 118. Tangney, J. P. and Salovey, P.(1999), Problematic social emotions: Shame, guilt, jealousy, and envy, Kowalski, Robin M. (Ed); Leary, Mark R. (Ed), (1999). *The social psychology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terfaces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pp. 167-195).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19. Verma, V. K., Ranjan, M. and Mishra, P.(2015, January), *Text mining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Role, issues and challenges*, In Emerging Trends and Technologies in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ETTLIS), 2015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pp. 133-137). IEEE.
 120. Witten, I. H.(2004), "Adaptive text mining: inferring structure from sequences", *Journal of Discrete Algorithms*, 2(2), 137-159.

Abstract

Revisiting the cause of unemployment problem in Korea's labor market: The job seeker's interests-based topic analysis[†]

Kim, Jung-Su* · Lee, Suk-Jun**

The pres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causes of employment difficulty on the basis of job applicant's interest from P-E (person-environment) fit perspective. Our approach relied on a textual analytic method to reveal insights from their situational interests in a job search during the change of labor market. Thus, to investigate the type of major interests and psychological responses, user-generated texts in a social community were collected for analysis between January 1, 2013 through December 31, 2015 by crawling the online-community in regard to job seeking and sharing information and opinions.

The results of topic analysis indicated user's primary interests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perception of vocation expectation, employment pre-preparation behaviors, perception of labor market, and job-seeking stress. Specially, job applicants put mainly concerns of monetary reward and a form of employment, rather than their work values or career exploration, thus youth job applicants expressed their psychological responses using contextualized language (e.g., slang, vulgarisms) for projecting their unstable state under uncertainty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Additionally, they have perceived activities in the restricted preparation (e.g., certification, English exam) as determinant factors for success in employment and suffered form job-seeking stress.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current unemployment matters are totally attributed to the absence of pursuing the value of vocation and job in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society. Concretely, job seekers are preoccupied with occupational prestige in social aspect and have undecided vocational value. On the other hand, most companies have no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and have overlooked the needs for proper work environment development in respect of stimulating individual motivation. The attempt in this study to reinterpret the effect of environment as for classifying job applicant's interests in reference to linguistic and psychological theories not only helps conduct a more comprehensive meaning for understanding social matters, but guides new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on job applicant's psychological factors (e.g., attitudes, motivation) using topic analysis.

Key Words: Adolescent's Job applicant, Interest, Social media, Text mining, Topic analysis

[†] The presen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by the Research Grant of Kwangwoon University in 2014.

* Ph.D. of Business Administration, Kwangwoon University, aron78@kw.ac.kr

**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wangwoon University, sjlee@kw.ac.kr

부록 I: 2013년 - 2014년 토픽 분석 결과

(2014년 1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생산직 산업 시간 기능사 사무직 자격증 에너지 따다 냉동 안전 토익 시급 필기 하루 에너지관 토목 야간 취득하다 설계 주말 학점	7.95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2	산업 자격증 토익 취업 따다 기능사 학점 시급 전문대 냉동 에너지 영어 안전 필기 용접 학년 되다 싶다 경력 졸업 나오다 대학 따다	30.42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3	생산직 연봉 사무직 면접 받다 일하다 아니다 중소기업 채용 좋다 취업 들어가다 월급 일 같다 대학 노무 아웃소싱 서류 기업 경력	28.58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일자리 전망
4	시간 하루 일 일하다 힘들다 쉬다 산업 받다 되다 월급 같다 끝나다 야간 벌다 주말 시급 출근 높다 아니다 공부하다 싶다	33.05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2014년 2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같다 싶다 되다 인생 아니다 친구 알다 좋다 못하다 받다 생각하다 대학 모르다 어떻다 힘들다 나오다 되다 결혼 벌다 직장 취업	30.63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2	자격증 기능사 따다 산업 시급 토익 취업 학점 과정 생산직 용접 전문대 대학 공부하다 졸업 학년 필기 위험물 따다 졸업하다 시험	24.57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3	면접 이력서 연락 전화 아웃소싱 떨어지다 서류 되다 물어보다 아니다 합격 날다 쓰다 같다 합격하다 지원하다 질문 중소기업 지원 정규직	17.80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4	시간 생산직 연봉 하루 일하다 받다 월급 야간 시급 잔업 출근 퇴근 쉬다 토요일 사무직 급여 수당 지급 특근 나오다 출퇴근 주말 생산	27.01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2014년 3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시간 연봉 생산직 일하다 하루 받다 월급 퇴근 시급 출근 토요일 야간 수당 잔업 쉬다 사무직 주말 아웃소싱 출근하다 야근 상여	27.47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2	기능사 자격증 산업 따다 취업 토익 학점 위험물 시급 필기 학년 경력 생산직 전문대 노무 용접 공부하다 시설관리 졸업 가능하다	23.27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3	면접 이력서 연락 서류 전화 날다 쓰다 합격하다 되다 물어보다 합격 중소기업 뽑다 아니다 지원 채용 알다 떨어지다 말하다 경력	20.34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4	싶다 같다 되다 생각 좋다 인생 알다 아니다 취업 대학 친구 힘들다 생각하다 어떻다 모르다 나오다 들어가다 못하다 정보 벌다	28.92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2014년 4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시간 일하다 하루 월급 잔업 야간 출근 생산직 연봉 퇴근 받다 주말 쉬다 특근 토요일 수당 힘들다 출근하다 시급 상여 휴무	28.18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2	자격증 기능사 산업 따다 생산직 시급 취업 학점 토익 용접 전문대 노무 위험물 필기 안전 따다 공부하다 냉동 시험 좋다 영어	21.34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3	면접 연락 이력서 물어보다 서류 전화 연봉 되다 쓰다 지원하다 뽑다 아니다 중소기업 질문 알다 지원 날다 좋다 되다 떨어지다 자소서	19.21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4	같다 되다 싶다 결혼 아니다 인생 친구 힘들다 생각 좋다 못하다 알다 생각하다 그렇다 받다 결혼하다 백수 일하다 생활 혼자 벌다	31.27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2014년 5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시간 일하다 하루 연봉 받다 같다 월급 아니다 출근 힘들다 조교 조선소 좋다 쉬다 침대 싶다 퇴근 야간 벌다 알다 생각하다 나오다	50.84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2	자격증 산업 생산직 토익 취업 학점 되다 시급 따다 기능사 면접 아니다 공무원 전문대 영어 같다 좋다 생각 노무 경력 싶다 용접	49.16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2014년 6월)

도표	기술 용어	비중(%)	도표명	세부도표명
1	시간 일하다 하루 퇴근 쉬다 반다 출근 야간 월급 시급 같다 주말 출근하다 잔업 나오다 일다 조교 되다 휴무 토요일 끝나다 일자리	20.67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2	자격증 산업 기능사 시급 취업 토익 학점 학년 따다 공무원 시험 위험물 전문대 대학 준비 생산직 졸업 공부하다 군대 현신 경력	19.55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3	싫다 같다 되다 인생 아니다 친구 생각 알다 좋다 생각하다 모르다 어떻게 혼자 하나 죽다 나오다 그렇다 백수 결혼 대학 되다 못하다	25.99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4	생산직 연봉 사무직 반다 힘들다 심대 월급 조교 일하다 나오다 기업 중소기업 평균 야근 정규직 들어가다 아니다 낮다 기술 상여	22.22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유형
5	면접 이력서 아니다 되다 취업 전화 뽑다 서류 연락 알다 합격하다 경력 합격 말하다 물어보다 지원하다 질문 붙다 학점 연봉 전공	11.57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2014년 7월)

도표	기술 용어	비중(%)	도표명	세부도표명
1	싫다 같다 아니다 되다 좋다 알다 그렇다 생각 친구 인생 백수 못하다 죽다 모르다 그리하다 파생 혼자 만나다 쓰다 생각하다	26.02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2	기능사 산업 자격증 위험물 산길 토익 따다 취업 학점 안전 군필 시험 환경 공부하다 전문대 경력 정보처리 자격 면접 화학분석	15.15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3	시간 하루 일하다 퇴근 출근 쉬다 백수 되다 주말 잔업 야근 같다 출근하다 일어나다 생각 토요일 야근 나오다 수당 퇴근하다 날다	19.02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4	공무원 시급 되다 인생 준비하다 시험 붙다 준비 공시 아니다 공기업 공부하다 연금 합격하다 그렇다 알다 합격 취업 토익	16.26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장래 희망 직종
5	생산직 연봉 반다 월급 사무직 기술 심대 힘들다 좋다 같다 아니다 경력 일하다 알다 직업 생산 조교 야근 나오다 잔업 솔직히 정규직	23.56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2014년 8월)

도표	기술 용어	비중(%)	도표명	세부도표명
1	아니다 같다 싫다 인생 친구 시한 생각 되다 좋다 생각하다 그렇다 못하다 알다 모르다 혼자 좇같다 하나 얼굴 결혼 생기다 힘들다	31.37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2	자격증 산업 토익 기능사 학점 따다 취업 시설관리 경력 시급 위험물 졸업 되다 시험 전문대 용접 공부하다 학년 안전 대학 서류 자격 영어	24.24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3	연봉 생산직 월급 반다 일하다 사무직 시급 중소기업 출근 나오다 야근 아니다 힘들다 퇴근 벌다 들어가다 쉬다 퇴직금 좋다 토요일	26.29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4	시간 하루 출근 일자리 되다 퇴근 선택제 정보 쉬다 같다 일하다 알다 여성 채용 시험 취업 면접 보내다 좋다 걸리다 야간 직장	18.09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일자리 현황

(2014년 9월)

도표	기술 용어	비중(%)	도표명	세부도표명
1	자격증 취업 토익 학점 따다 기능사 오졸 전문대 나이 공무원 산업 대학 졸업하다 준비하다 졸업 학년 공부하다 좋다 영어 반다	20.85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2	시간 하루 일하다 시급 연봉 쉬다 출근 반다 월급 야간 퇴근 잔업 출근하다 혼자 수당 야근 되다 나가다 주말 숙식 무조건 서울	19.12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3	인생 같다 친구 싫다 생각 결혼 혼자 백수 아니다 알다 나이 되다 결혼하다 모르다 못하다 직장 생각하다 벌다 얼굴 맞다 좋다	24.54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4	면접 자소서 이력서 쓰다 되다 취업 서류 좋다 알다 같다 어떻게 아니다 뽑다 공백기 전화 쓰다 연락 물어보다 놓다 나오다 놓다	18.40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5	생산직 사무직 힘들다 연봉 아니다 백수 일하다 반다 같다 월급 나오다 조교 모르다 중소기업 되다 알다 그만두다 따지다 야근	17.09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기대되는 연봉

(2014년 10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면접 서류 되다 뽑다 이력서 물어보다 떨어지다 같다 연락 불다 지원하다 아니다 합격 질문 쓰다 알다 공백기 최종 자소서 연봉	16.84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2	시간 퇴근 출근 일하다 하루 생산직 쉬다 퇴근하다 받다 주말 되다 월급 좋다 연봉 힘들다 야간 벌다 혼자 수당 알다 생각 시급 좇같다	23.61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3	취업 자격증 생산직 토익 학점 대학 산업 시급 기능사 따다 경력 나오다 기술 전문대 취업하다 준비 졸업 심대 아니다 가능하다 힘들다	30.37	취업 스트레스	취업불안
4	인생 되다 같다 아니다 싫다 좋다 결혼 생각 백수 그렇다 친구 못하다 생각하다 받다 일하다 능력 나오다 좇같다 알다 쓰레기	29.18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2014년 11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자격증 따다 산업 취업 경력 기능사 토익 기술 시급 학점 나이 생산직 시험 시설관리 따다 대학 연봉 졸업 공부하다 위험물 쌓다	24.90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2	시간 퇴근 출근 되다 일하다 받다 월급 연봉 출근하다 생산직 쉬다 퇴근하다 산업 힘들다 아파트 시설 시급 주말 어떻게 생각 혼자	22.55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3	인생 같다 아니다 좋다 받다 되다 나이 결혼 기술 싫다 월급 친구 생각하다 알다 일하다 능력 벌다 결혼하다 직장 생각 못하다 생산직	34.00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4	면접 서류 연락 뽑다 같다 이력서 쓰다 알다 아니다 나오다 전화 나이 떨어지다 되다 최종 모르다 경력 기업 일하다 합격하다 받다 싫다	18.55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2014년 12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취업 자격증 따다 나이 대학 토익 산업 학점 나오다 졸업 취업하다 준비 학년 졸업하다 경력 전공 전문대 문과 시설관리 인생 백수	27.41	취업 스트레스	취업불안
2	백수 인생 같다 되다 아니다 친구 시간 싫다 알다 못하다 생각하다 일하다 혼자 힘들다 벌다 하루 결혼 생각 나이 좋다 모르다	28.21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3	생산직 연봉 기술 시설관리 받다 일하다 경력 시간 자격증 월급 따다 나이 중소기업 산업 사무직 퇴근 힘들다 들어가다 기술직	27.35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4	면접 연봉 연락 시간 받다 이력서 같다 뽑다 전화 출근 아니다 되다 합격하다 최종 채용 물어보다 직원 월급 나오다 경력 질문 합격	17.03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2013년 1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같다 되다 알다 싫다 친구 아니다 못하다 생각 모르다 그렇다 나가다 어떻게 놓다 이야기 좋다 인생 가지다 건물 생각하다	24.18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2	산업 기능사 자격증 따다 에너지 안전 정비 냉동 토익 공무 되다 따다 시설관리 필기 위험물 시험 용접 진단 기술사 취득하다	12.76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3	생산직 사무직 연봉 아니다 중소기업 전문대 힘들다 건물 일하다 들어가다 찢리다 좋다 대학 인생 쓰레기 높다 기술직	15.45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유형
4	취업 토익 편입 학점 대학 졸업 전문대 학년 졸업하다 자격증 공부하다 영어 시급 나오다 자퇴 기업 공무원 자퇴하다 준비 학살	23.75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5	시간 연봉 하루 일하다 받다 월급 출근 야간 되다 쉬다 퇴근 좋다 주말 힘들다 산업 직장 토요일 야근 수당 벌다 중소기업 그만두다	23.86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2013년 2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생산직 산업 시간 기능사 사무직 자격증 에너지 따다 냉동 안전 토익 시급 필기 하루 에너지관 토목 야간 취득하다 설계 주말 학점	7.95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2	산업 자격증 토익 취업 따다 기능사 학점 시급 전문대 냉동 에너지 영어 안전 필기 용접 학년 되다 싶다 경력 졸업 나오다 대학 따다	30.42	취업 스트레스	취업불안
3	생산직 연봉 사무직 면접 받다 일하다 아니다 중소기업 채용 좋다 취업 들어가다 월급 알다 일 같다 대학 노무 아웃소싱 서류 기업	28.58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유형
4	시간 하루 일 일하다 힘들다 쉬다 산업 받다 되다 월급 같다 끝나다 야간 벌다 주말 시급 이렇다 출근 놀다 아니다	33.05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2013년 3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싫다 되다 같다 생각 좋다 알다 아니다 모르다 친구 그렇다 생각하다 로또 어떻게 인생 나오다 결혼 혼자 놀다 못하다 군대	29.58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2	자격증 토익 산업 학점 따다 기능사 시급 취업 학년 공부하다 영어 전문대 졸업 학기 시험 좋다 교수 전공 노무 준비 필기 따다	22.80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3	생산직 면접 연봉 중소기업 사무직 받다 들어가다 아니다 같다 월급 이력서 경력 일하다 취업 기술 업체 연락 기업 대학 좋다	26.81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4	시간 하루 일하다 월급 시급 받다 야간 쉬다 연봉 출근 힘들다 출근하다 잔업 되다 벌다 퇴근 주말 수당 토요일 평일 공부하다	20.81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2013년 4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면접 시간 되다 같다 일하다 받다 하루 아니다 전화 알다 아웃소싱 월급 질문 연봉 이력서 출근 쓰다 연락 좋다 싶다 잔업 물어보다	51.23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2	자격증 생산직 토익 취업 산업 전문대 따다 기능사 아니다 좋다 되다 시급 졸업 공부하다 학점 대학 같다 싶다 연봉 인생 들어가다	48.77	취업 스트레스	취업불안

(2013년 5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생산직 면접 자격증 토익 취업 경력 연봉 기능사 전문대 따다 학점 아니다 사무직 들어가다 중소기업 산업 같다 졸업 서류 시급 기업	49.64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2	시간 되다 일하다 같다 하루 좋다 싫다 아니다 생각 친구 받다 백수 알다 힘들다 청년 쉬다 생각하다 모르다 벌다 월급 나오다	50.36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2013년 6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생산직 자격증 취업 연봉 나이 토익 전문대 시급 대학 공기업 학점 산업 십대 졸업 공무원 따다 경력 인생 되다 좋다 들어가다 사무직	51.25	취업 스트레스	취업불안
2	같다 시간 되다 아니다 싶다 일하다 생각 말 하루 알다 받다 좋다 힘들다 벌다 야간 친구 못하다 모르다 되다 나오다 마음 쉬다	48.75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2013년 7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일 시간 되다 싶다 같다 일하다 받다 좋다 친구 힘들다 아니다 알다 생각 월급 그렇다 백수 모르다 인생 나가다 나오다 별다	25.63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2	산업 기능사 자격증 따다 산길 위험물 군대 전문대 안전 일 에너지 학년 냉동 용접 학점 따다 졸업 필기 시간 입학 기계설계 정비	15.18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3	생산직 연봉 사무직 일 일하다 받다 시간 십대 아니다 야간 월급 힘들다 들어가다 같다 생산 정규직 노출 노예 중소기업 기술직	20.06	예측되는 어려움	기대되는 연봉
4	면접 이력서 전화 눈물 알다 같다 일 콧물 뺀다 연락 질문 플러스 중소기업 되다 싶다 떨어지다 모르다 아니다 서류 지원 넣다	14.66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5	토익 취업 영어 대학 학점 나오다 공무원 학년 시급 전공 아니다 되다 자격증 공부하다 학원 졸업 준비 시험 취업하다 공기업 수능	24.74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2013년 8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같다 싶다 되다 말 아니다 인생 생각 알다 친구 좋다 아안 모르다 생각하다 못하다 그렇다 만나다 어떻다 취업 결혼 맞다 눈물	24.90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2	생산직 사무직 연봉 아니다 중소기업 일하다 자동차 잔업 힘들다 같다 생산 일 직업 되다 싶다 들어가다 알다 모르다 스트레스	14.41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유형
3	산업 기능사 자격증 토익 학점 위험물 취업 따다 군대 학년 시급 대학 자동차 추천 전문대 안전 졸업 공부하다 정비 수능 졸업하다	18.74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4	시간 일 일하다 하루 야간 쉬다 퇴근 출근 월급 받다 눈물 콧물 수당 플러스 잔업 되다 시급 나가다 출근하다 아안 퇴근하다 주말 힘들다	20.91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5	면접 연봉 서류 토익 취업 뺀다 시급 이력서 영어 채용 쓰다 기업 되다 물어보다 학점 지원 지원하다 합격 넣다 받다 공기업 아니다	21.04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2013년 9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시간 같다 싶다 되다 일하다 친구 알다 하루 생각 아니다 조전소 좋다 그렇다 힘들다 모르다 받다 생각하다 추석 못하다 나오다 만나다	31.41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2	면접 서류 쓰다 자소서 떨어지다 붙다 합격 이력서 되다 아니다 최종 알다 같다 좋다 연락 질문 넣다 준비 지원 발표 물어보다 지원하다	16.21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3	생산직 연봉 사무직 받다 조전소 일하다 시간 아니다 직업 좋다 별다 들어가다 월급 되다 같다 중소기업 기술 생산 잔업 경력 기업	25.26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장유형
4	토익 자격증 취업 시급 학점 대학 기능사 전문대 따다 영어 산업 가능하다 되다 시험 학년 졸업 공무원 수능 공부하다 졸업하다	27.12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2013년 10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같다 되다 싶다 아니다 알다 생각 좋다 친구 인생 모르다 생각하다 공부 일하다 못하다 그렇다 대학 나오다 힘들다 만나다 쓰다 받다	28.83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2	면접 서류 노무 떨어지다 합격 질문 연락 붙다 같다 이력서 쓰다 아니다 전화 자소서 합격하다 발표 물어보다 결과 최종 알다 지원	17.48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3	자격증 노무 산업 토익 기능사 공부 따다 취업 시급 학점 전문대 대학 공부하다 영어 경력 공무원 수능 졸업 산길 안전 기술 나오다	26.52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4	생산직 연봉 시간 일하다 받다 월급 사무직 지원 아니다 하루 경력 힘들다 조전소 좋다 별다 잔업 시급 수당 중소기업 굶다 기숙사	27.17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2013년 11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시간 생산직 일하다 만다 월급 연봉 하루 퇴근 힘들다 출근 야간 쉬다 주말 중소기업 사무직 나오다 그만두다 알다 퇴근하다 아니다	26.53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2	눈물 콧물 싫다 영화 이루다 로또 힘들다 아프다 진심 제품 조르다 답답하다 출근 되다 나오다 피시방 전자 좋다 게시물 한숨 퇴근하다	6.23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3	면접 서류 연락 합격 합격하다 떨어지다 이력서 전화 물어보다 불다 알다 질문 연봉 최종 되다 뽑다 넣다 같다 떨어다 받다 지원하다	12.75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채용과정
4	자격증 취업 토익 생산직 학점 시급 전문대 산업 졸업 나이 따다 되다 졸업하다 기능사 대학 공부하다 학년 들어가다 십대 공무원	25.83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5	같다 되다 아니다 싫다 말 생각 좋다 인생 생각하다 친구 알다 모르다 그렇다 못하다 맛다 백수 공무원 인간 직장 만나다 마음	28.66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

(2013년 12월)

토픽	기술 용어	비중(%)	토픽명	세부토픽명
1	토익 자격증 취업 학점 산업 시급 면접 기능사 따다 졸업 학년 되다 전문대 경력 생산직 연봉 공무원 나오다 서류 가능하다 기업 영어 대학	45.98	취업사전 준비활동	스펙준비
2	시간 같다 되다 받다 일하다 아니다 싫다 친구 알다 월급 연봉 생각 인생 좋다 생각하다 하루 힘들다 별다 되다 좇같다 만나다	54.02	취업 스트레스	진로장애